

2014년 6월 6일

President Barack Obam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나는 미국 장로교 총회를 대신하여 지난 주에 당신이 추방 정책들에 대한 어떤 결정도 미루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나라는 광범위한 이민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은 계속해서 이민법의 변화를 옹호하고 있지만, 개혁없이 지나가는 매일 1000 명의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1000 명들 중 많은 사람들은 광범위한 이민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그 개혁의 수혜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1000 명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1000 명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입니다. 그러한 1000 명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행정부가 추방 정책들을 검토한 후에 제거하거나 변화시켜줄 것이라 우리가 희망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들 때문에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우리는 당신이 추방정책들을 검토한 후에 국토 안보부의 많은 시행 프로그램들에 스며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 소망했습니다. 어쨌든, 광범위한 이민 개혁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현지 경찰관과 연방 이민 당국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이민 단속 조치들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287 (g)와 안전 지역 사회 (S-Comm) 프로그램들은 피해자들과 증인들이 추방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보고도 보고하기를 꺼리는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종프로파일링을 증가시키고,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환영받지 않는다는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승인의 메시지를 보내 줍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국토 안보부가 정해 놓은 우선적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을 추방 절차로 몰아 넣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가 모두 이웃이라는 사실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종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광범위한 이민 개혁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나란히 일어나야 하고, 또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3월에 당신이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당신의 행정부가 우리 지역 자선 단체들에서 자원 봉사를 하거나, 우리 경제에 공헌하거나, 또는 여기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 어릴 때에

미국에 도착한 자들을 위한 연장 조치 (DACA) 프로그램과 같은 유사한 과정을 시행해 줄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이미 개혁이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이등 시민권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쟁을 종식시키지 못할 것이고, 단순히 온전히 합법적 신분으로 나아가는 경로에서 더욱 안전한 발판을 구축해주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또한 나는 의회에서 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좀 더 오래 기다리고자 하는 당신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매일 사람들이 추방 당하는 것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국토 안보부가 그들의 분별력을 정말 일관성있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추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종프로파일링을 제도화하는 287(g)와 안전 지역사회 (S-Comm)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들은 추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책으로 옮기는 일을 제발 지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디 파슨스 목사

미국 장로교 정서기